

# 광주교대 총장 후보, 논문 표절 의혹

### A교수, 제자 선행논문 표기없이 연구년논문 학회지 게재

### ‘카피킬러’ 표절률 28% · 연구윤리委 “연구부정 행위 해당”

2년5개월째 총장 공백 상태인 광주교육대학교가 새로운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해 적격성 여부를 놓고 검증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유력 후보가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구부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자의 학위논문이 버젓이 인준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뒤 출처나 참고문헌 등 선행논문에 대한 어떠한 표기도 언급없이 교수 단독 명의로 학회지에 게재해 대학 사회, 특히 학계 연구윤리 분야의 고질적 적폐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광주교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총장추천위원회 결정 등을 토대로 지난 1월 A교수를 1순위로, B교수를 2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차관급인 교대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유력 후보인 A교수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연구윤리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 등 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7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심각한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인 ‘부당저자 표시’를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013년 6월 한국초등교육 학회지에 게재된 A교수의 연구 논문은 해당 논문이 학회지에 신청된지 3개월, 공식 게재·발행된 지 4개월 전, 앞서 정식 인준을 받은 제자 B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주요 자료와 해석, 심지어 제목과 결론까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절 분석 전문시스템인 ‘카피킬러’ 검사결과에서도 표절률은 28%를 기록했다. 전체 126개 문장 가운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 문장이 2개, 의심 문장이 62개에 달했다.

이는 국내 학계 마지노선이자 광주교대 연구윤리 검증 표절상한선인 20%를 넘어선 수치다.

실제 A교수의 논문은 제자 B씨의 학위논문과 제목에 비교대상 국가 이름의 순서만 뒤바뀐 것을 사실상 일치하고, 동일한 데이터에 의한 동일한 해석, 동일한 결론까지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했다. 여섯달여 이상이 연속해서 글을 경우 표절로 색출되는 점을 의식해인지 6여절이 피기 전에 명사나 수식어, 조사의 위치와 서술어가 바뀌는 사례도 발견됐다.

표절의심 문장은 서론은 물론, 연구방법, 연구결과에서도 여러 곳 발견됐고, 특히 연구성과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결론 부분에서는 대다수 문장이 표절로 의심됐고 표절률(유사율) 50% 이상 문장만도 10여 개에 달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4가지 제안도 사실상 베끼기 수준에 가깝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당한 저자 표시로, A교수는 제자 B씨의 학위 논문이 나온 뒤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도 참고문헌 등을 통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고, 연구년 학술 논문이라는 이유로 공동저자없이 단독으로 논문을 학회지에 올렸다.

2016년 12월 개정된 광주교대 연구윤리규정 제4조에는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거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당 저자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

돼 있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학위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할 때 지도교수를 공저자, 특히 제1저자로 슬그머니 끼워넣는 관행 역시 청산돼야 할 적폐로 보고 있는데 출처 표기나 공저 누락은 이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학부생들의 ‘보고서 표절’까지도 훗날 자신의 이력에서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학가 연구윤리에 ‘캠퍼스 미투’와 함께 가장 무거운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논문 표절·위조·변조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 박사학위 연구원은 “선행연구 목록에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기했는지라도 유사도가 높을 경우 그마저도 표절로 보거나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운데, 이에 선행 논문들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 국립대 교수는 “표절과 저자 표시는 엄격한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학자로서의 기본윤리의 문제”라며 “논문 표절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저명한 학자의 논문을 가져온게 아니라 제자의 학위논문을 표절했다면 더욱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연구년 주제와 학술지 논문 주제가 같고 연구년 때 수집한 자료, 분석한 데이터 등을 토대로 이후 제자가 학위논문을 작성하다보니 유사한 점이 많았던 것이고, 연구년 논문은 단독 명의로만 인정돼 공저자로 넣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제자가 학위논문 제출 시한에 쫓겨 도움을 요청해와 학술지에 출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표절률을 다시 분석한 결과 22%로 낮아졌다. 총장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달린다 피카츄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 위대한 페스티벌 5km 마라톤’에서 피카츄 복장을 한 참가자가 험하게 출발하고 있다.

## 국과수·원안위 ‘영광 한빛원전 화재’ 원인 등 합동감식

영광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국과수 등이 감식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9일 영광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과 방화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였다.

감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킨스, 소방 등이

참여했다. 또 감식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밝히고 방화는 누출 여부,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살펴봤다.

이날 화재는 오전 2시20분께 한빛원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서 알려졌다.

불은 한빛원전 1호기 격납건물 내 냉각제 배관 주변에서 발생했으

며 경보를 감지한 원전 자체 소방대가 출동 소화기를 이용해 10분 만에 불을 꺼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

한빛원전 측은 증기발생기와 원자로 냉각 재퍼프 사이를 지나는 냉각제 배관 보온덮개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차에 기댔다’며 취객 때린 20대 조폭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시비가 붙은 취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폭력조직원 A(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B(22)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0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취객 C(37)씨 등 2명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C씨는 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은 만취한 C씨가 일행이 주차한 차량에 몸을 기대고 서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C씨 일행과 승강이를 벌인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행 중 폭력을 행사한 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음주운전 중 차량 잇단 충돌 3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주차 차량 등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 서구 마북동 한 상가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면허정지 수치)인 음주상태로 SUV를 몰다가 B(60·여)씨의 승용차를 비롯해 주차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가 앞 도로를 달리다가 주차장에서 후진해 빠져나오던 B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주변 주차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A씨의 SUV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피해자로 A씨를 조사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B씨는 경찰에 “후진은 하지 않았다. 후진 거어로 바뀌놓은 상태에서 A씨의 차량이 먼저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 차량 절도 20대 구속·10대 소년원 인계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닌 혐의(특수절도,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배도(24)씨를 구속하고, 조모(14)군을 소년원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과 3일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이면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2대를 훔쳐 무면허 운전하고 경차 번호판을 떼어 바꿔치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산후해 사이인 이들은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차로 광주에서 전남 순천·담양·곡성을 오갔으며,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만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행 도중 불이 난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뒤 다시 차를 훔쳐 번호판까지 바꿔 타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운전이 미숙한 이들이 훔친 차를 몰고 나오는 과정에 주차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누방기간 중 재범한 배씨를 구속하고,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가 정법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영장을 발부받은 조군을 소년원에 인계했다.

##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40대 구속

부산 금정경찰서는 10일 대표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40대 송금책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대표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600만원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인터넷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이후 피해금을 송금하면 건당 3%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통장을 양도한 2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을 조사 중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